

첨부파일 1. 소비자피해 주요 사례

【사례1】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

임**씨는 2018. 7. 2. 자격증 관련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, 570,000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함. 2018. 7. 10.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였으나, 계약 후 7일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함.

【사례2】 의무사용기간 수강을 주장하며 환급 거부

이**씨는 2018. 4. 10. 자녀의 학습을 위해 인터넷교육서비스 1년 계약을 체결하고, 2,376,0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함. 2018. 5. 자녀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함. 의무사용기간 7개월까지는 수강해야 한다며 계약해지 및 환급을 거부함.

【사례3】 위약금 및 이용금액 과다 청구

김**씨는 2018. 5. 17. 자녀 학습을 위해 인터넷교육서비스 18개월 계약을 체결하고, 3,564,0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함. 2018. 6. 25. 교육서비스 관리 방식이 예상과 달라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함. 3개월 수강료 1,544,000원과 사은품으로 제공됐던 노트북 750,000원 총2,294,000원 공제 후 1,270,000원을 환급 하겠다고 함.

【사례4】 계약 불이행

최**씨는 2018. 3. 10. 어학시험 관련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399,000원을 결제함. 수강 이후 2회에 걸쳐 780점 이상 취득 시 100%환급, 850점 이상 취득 시 120% 환급, 900점 이상 취득 시 150% 환급, 950점 이상 취득 시 200% 환급, 990점 취득 시 300% 환급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계약함. 최**씨는 2회에 걸쳐 955점을 획득해 환급 신청을 했으나, 사업자는 100%만 환급 가능하고, 출석을 모두 해야 인정 가능하다고 이를 거부함.